

위르겐 몰트만의 체험의 신학

전 철 (theology@theology.co.kr)

2008년 9월 29일

차 례

차 례	1
1 몰트만의 출발점	1
2 몰트만의 초기저작	1
3 몰트만의 체험의 신학	1
4 교회적 신학의 기초	2
5 몰트만의 신학적 도전	2
6 몰트만의 신학의 의미	3
7 신학의 Sitz im Leben	3
8 신학의 과제	4

1 몰트만의 출발점

신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성 바르트 이래로 가장 큰 신학적 반응을 오늘날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은 주목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몰트만에 관한 학위 논문이 천 권 이상 쏟아져 나왔으며 계속 논문은 쓰여지고 있다. 몰트만의 고민의 출발점은 함부르크에 떨어진 전쟁의 포화에서 시작한다. 순식간에 지옥의 불바다가 된 잿더미에서 그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나는 저 죽음하고는 달리 생면부지 생명이 이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절규가 그의 신학적 출발점이다. 그리하여 그는 과학도에서 신학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메츠도 몰트만과 유사한 실존적인 경험을 통하여 신학의 길에 들어섰다.

2 몰트만의 초기저작

그의 신학의 초기 저작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종말론을 신학의 최종과제가 아니라 신학적 출발점에서부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희망의 신학, 루터와 본회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된 십자가에 달린 신 하나님, 성령론과 교회론을 다루며 생동하는 Volkskirche에 대한 논의의 관심에서 진행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이다. 그 이후에는 갈등과 대화라는 신학적 주제로 그의 학문적 방향은 점진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당시의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라는 폴리컨텍스트적인 신학과도 유사성을 함께 나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논문을 쓴 한국의 안병무는 마가복음에 있는 오클로스 개념을 새롭게

해석해서 한국에서의 Minjung 신학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보프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후에 잠시 다루기로 하자.

3 몰트만의 체험의 신학

몰트만은 신학을 관념의 모험 *Abenteuer der Ideen* 이라고 이해한다. 신학은 다름이 아닌 아이디어의 모험이다. 이는 몰트만의 신학을 체험의 신학 *Erfahrungstheologie* 이라고 이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관념의 모험은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헤드는 관념의 모험이라는 저서에서 문명에 대한 사회학적, 형이상학적, 우주론적,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 문명이 어떻게 진, 선, 미를 향해 전개되는 지를 해명한다. 참 아름다운 저작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 우주에는 윤리, 미학, 종교의 다양한 차원의 여러 패러다임들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서로 경합과 조화를 펼치면서 우리의 문명과 문화가 점진적으로 전개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란스이다. 가치의 경합과 조화이다. 무엇이 신학인가? 신학은 이념, 관념, 아이디어의 모험인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여는 것이다. 경험 *Erfahrung* 자체가 그러한 속성을 지닌다. 그에 의하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다양한 패러다임들을 단면적으로, 그리고 단일한 이념으로 축소시키는 신학적 작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패러다임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창조성을 만드는 차이이다. 우리는 차이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이, 그리고 이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결코 둘 중의 하나가 좋고 나쁘고의 가치평가가 아니다. 분리와 통전이라는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4 교회적 신학의 기초

전 하이델베르크 교수였던 볼프강 후버는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교회의 근거에는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다원화된 사회에 교회의 자리가 놓여져 있다는 자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의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 과제가 있다. 개인과 사회의 건강함을 지향하는 과제가 있으며, 그 치유와 갱신을 향한 내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몰트만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감당해야 하는데 있다. 즉 그는 현대 사회에 직면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교회적 신학의 이론적 기초를 추구하고는데 많은 시간을 기울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에큐메니칼한 문제제기와 그의 신학적 성격은 기초를 출발점을 부여 받는다. 차이를 차이로 방치하거나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고는 냉전적 사고이다. 오히려 차이를 진정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안목이 의미 있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차이는 풍부한 차이로 승화되며,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재료들이 된다.

5 몰트만의 신학적 도전

그가 우리에게 준 신학적 도전과 의미를 생각해보자. 첫째, 신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완성의 작품이다. 몰트만의 주요한 관심은 계시와 신학의 관계이다. 계시는 영원한 메시지이다. 그러나 신학은 하나의 미완성 *Fragment* 일 수 밖에 없다. 여러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신학의 역할도 각자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계시와 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신앙은 무신앙을 넘어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교회는 현실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한편으로는 희망의 신학이다. 둘째, 신학은 희망이다. 휴식을 위하여 가볍게 골라서 휴양지로 갖고 간 볼르호의 역작 희망의 원리로 인해서 그는 휴가의 온 시간을 내팽개쳤지만, 볼르호로 인하여 그는 희망의 신학의 단초를 발견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의 모습, 즉 희망을 잃어버린 신학에 대하여 비판한다. 신학은 희망이 되어야 하고, 희망이 될 수 있다. 셋째, 그는 우리들에게 신학적 사고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었다. 세계의 다차원적인 패러다임과 신학의 다양한 편린들을 경시하지 않으며 그 세계를 향한 열정을 그는 갖고 있었다. 즉 그는 신앙의 매개Medium des Glaubens를 새롭게 고민하고 전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초월은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경험적' 이해이다. 바로 초월은 현재에 대한 이해의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에 대한 이해는 희망을 매개하는 종말론적 관점이 연루된 이해이다.

6 몰트만의 신학의 의미

몇 자 남기자. 전쟁의 포화에서 삶과 죽음의 처절한 피비린내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몰트만의 신학에 묻어 있다. 그의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실존적인 경험과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경험의 신학Erfahrungstheologie 이라고 한다. 몰트만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한 견해들도 나는 감지하고 있다. 즉 엄격하게 학문적이기보다는 대화적이고 에큐메니칼한 입장의 특징과 표현으로 인하여 그는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용엘이나 판넨베르크나 링크나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학적 지명도는 몰트만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다. 몰트만이 전세계의 신학에 영향을 주고 받는 이유가 이론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정치신학적, 그리고 에큐메니칼적인 태도에만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보자.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학문인가? 신학이란 과학인가?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세계와 학문을 매개로 한 신학의 세계가 얼마나 상호 대화적인 두 세계일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 이해의 영역에 온전히 포섭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만큼 몰트만, 바르트, 용엘, 판넨베르크, 링크를 어떠한 특정한 학문적인 입장이나 정파적 해석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담론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신학적인 진실성과는 거리가 먼 입장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점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신학과 신학자가 얼마나 그의 실존적인 경험과 신학적 삶에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대면하고 있으며, 한 시대의 교회공동체와 신학의 세계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신학의 Sitz im Leben

나는 한국에서 뿌연하게 접한 몰트만의 신학사상을 구체적으로 몰트만을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강의에 임했다. 그러나 나는 몰트만이 말한 신학적 특징과 관점을 접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였다. 기대 밖이었다. 오히려 몰트만이 왜 그렇게 절규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품어 내는지에 대한 문화적 컨텍스트를 헤아리게 되었다. 나로서는 참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다. 즉 어떠한 신학자에 대한 이해는 말하자면 그의 텍스트를 상호 종합하면서 어떻게 잘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작 신학자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메타논리, 즉 신학의 문화적 공학을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보여진 텍스트는 그러한 문화의 한 표현일뿐이며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 텍스트가 출현한 동기와 과정과 그 지향에 대한 분석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지도에 관련해서도 작게나마 암시를 받았다. 지도교수의 논문지도의 원칙은 바로 어떠한 개념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출현하게 된 형태적 역사적 문화적 검토의 강조에 있었다. 이는 참 심각한 문제제기이다. 즉, 신학은 그 자체가 어떠한 객관적인 담론의 체계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신학을 접하는 우리의 입장이 참으로 난감해지는 것이다. 서구신학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경험의 총체적인 표현인 것인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공유했고 공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텍스트 주석만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어느 누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떠한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콘텍스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텍스트를 주조한 메타논리에 대한 이해 - 이러한 정신을 삶의 자리 *Sitz im Leben*에 대한 이해로 표현하기도 해왔지만 - 가 관건인 것이다. 신학은 문화적 경험의 지위가 있으며 이론적 추상화의 지위가 있다. 신학은 바로 이러한 두 요소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에서 이러한 배려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한국신학과 외국신학을 비교하는 일방적인 가치평가의 문제를 넘어서는 난제를 지시한다.

8 신학의 과제

본래적으로 신학은 신앙적 교회적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문화를 기반한다. 이 문화는 예술적 향유의 문화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경험에 기반한 문화를 지시한다. 여기에는 당대의 신앙공동체의 정체성과 시대적 요구와 열망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학의 이해와 분석은 그 신학이 잇대고 있는 그 밀변의 경험과 문화에 대한 분석과 다른 말이 아니다. 이론적 추상화가 된 다양한 신학의 편린들을 추상적 위계에서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는 시도 자체는 언제까지나 제한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다. 이 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이해가 아니라 몰트만의 신학의 내부에 들어가서 그의 삶과 열정과 문화를 잠시 헤아릴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체험의 신학 *Erfahrungstheologie*« 이는 몰트만의 신학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씨름하는 신학이 그의 삶과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¹⁾

1) 위의 글은 Prof. Michael Welker의 *Vorlesung, Einfuehrung in Systematische Theologie - Moltmann, Erfahrungstheologie* (23-24.01.2003)을 참여한 후에 기록한, 2003년 1월 26일 작성된 글이다.